전남도 교육위원들 '낯뜨거운 감투싸움'

의장 불신임 투표로 내분 … 지역민 '눈총'

의장측 "강행 처리 땐 법적 대응" 맞서

전남도교육위원회가 의장직을 놓고 심각한 내분을 겪으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위원 등에 따르면 전체 9명 의원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서기남 의원 등을 제외한 6명이 서견룡 도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문안작성과 서명을 마쳤다.

불신임 사유로 의장으로서 리더십과 자질 부족, 의장실 비서진과 운전원의 정실 채용,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과 견제기능 상실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의장 불신임안의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의장 선거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약속된 '의장직 1년씩 나눠먹기'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위원은 "모 위원이 서 의장에게 의장직을 1년씩 나눠서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듯 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 불신임 파동은 교육위가 처음 개원했던 지난 1991년 박동수 의장이 당선 2개월 만에 전교조 초청 좌담회 등을 이유로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후 두 번째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장환 도교육감의 임기가 내달 25일 끝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이 같은 내분이 불거져 눈총을 사고 있다.

서명파 위원들은 14일께 신종플루 대책, 의정비 심의 등을 이유로 임시회를 소집한 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불신임안을 관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의장이나 부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 처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서명파 위원들은 지난 1일 외빈까지 초청됐던 개원식에 불참해 행사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반면 서 의장측은 불신임 주도 위원이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하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장측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지 모르겠다. 의장직을 1년씩 나누기로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주변에선 "낙후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자리싸움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설이 교육계에 파다하다. 제발 교육위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학생들의 '추석 상 차리기' 광주에 거주하는 유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의 교류모임인 '국제학생모임' 소속 학생들이 지난 12일 광주 향교를 찾았다. 학생들이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 차림으로 절하는 법과 다도, 추석 상차리기를 배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벌초시즌 예초기·벌·뱀 조심!"

다치고 쏘이고 물리고 … 전남지역 사고 속출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다가 예초기에 돌이 튀어 눈을 다치거나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산에서 야외활동 중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855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구조 인원(3천560명)의 24%로,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 등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9시께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신평마을 인근 야산에서 노모(31)씨가 벌초를 하던 중 예초기 날과 부딪친 돌이 안경에 튀어 부상을 입고 광주지역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화순군 능주면 천암리 구다리 앞 산 정상 부근에서 박모(66)씨 등 2명이 벌초 작업중 벌집을 건드리는 바람에 온몸에 벌에 쏘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벌초 도중 뱀에 물린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10분께 화순군 화순읍 대리 인근 야산에서 윤모(48)씨가 벌초를 하던중 독사에 우측 손가락을 물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 수가 늘어난 탓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뱀에 물리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1339번(광주 응급의료정보센터)을 누르면 응급처치 상담을 할 수 있고 당직병원과 약국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263건 가운데 60.8%(160건)가 7~9월에 집중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의 사고 조폭 등 8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0)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천287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도교육위원 '명예훼손' 징역형

예산심의 발언 고소당한 김성 부의장 … 이례적 유죄 판결

광주지법, 징역 4개월 집유 1년…김부의장 "항소하겠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남도교육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전남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성 부의장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위원이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 발언 등으로 피소돼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나주의 모 고교 P이사장과의 20여년 전의 악연을 거론하며 "도 교육청이 이 학교에 거액(23억원)을 지원한 것은 로비에 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내가 사실상 설립하고 나서 부도난 병원을 P이사장이 금력과 권력을 동원, 몽땅 빼앗아 갔고 그 사람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P이사장은 "관련 예산은 학교 이사장 취임 전에 확정된 것으로 로비 운운이나 병원부도 등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위원이 권력을 이용해 중상모략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김 부의장은 "불·탈법에 의해 병원이 경매로 넘겨진 사실은 확인돼 기소 내용에 빠졌다"며 "특혜의혹 제기는 교육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인 만큼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이 유흥업소서 성매매

광양경찰 경사 직위 해제

성구매자 명단 11명 조사

전남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광양경찰서 소속 A(39)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순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A경사를 조사해 왔으며, A경사는 최근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술집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며 업주를 고소하면서 제출했던 성구매자 명단을 통해 A경사의 성매매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명단에 거론된 11명의 남성들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종플루 5명 확진

화순 모 중학교 휴업 연장

지난 11일 신종플루 양성환자 발생으로 하루 휴업을 했던 화순군 모 중학교에서 모두 5명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휴업이 연장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9명이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지난 12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임시 휴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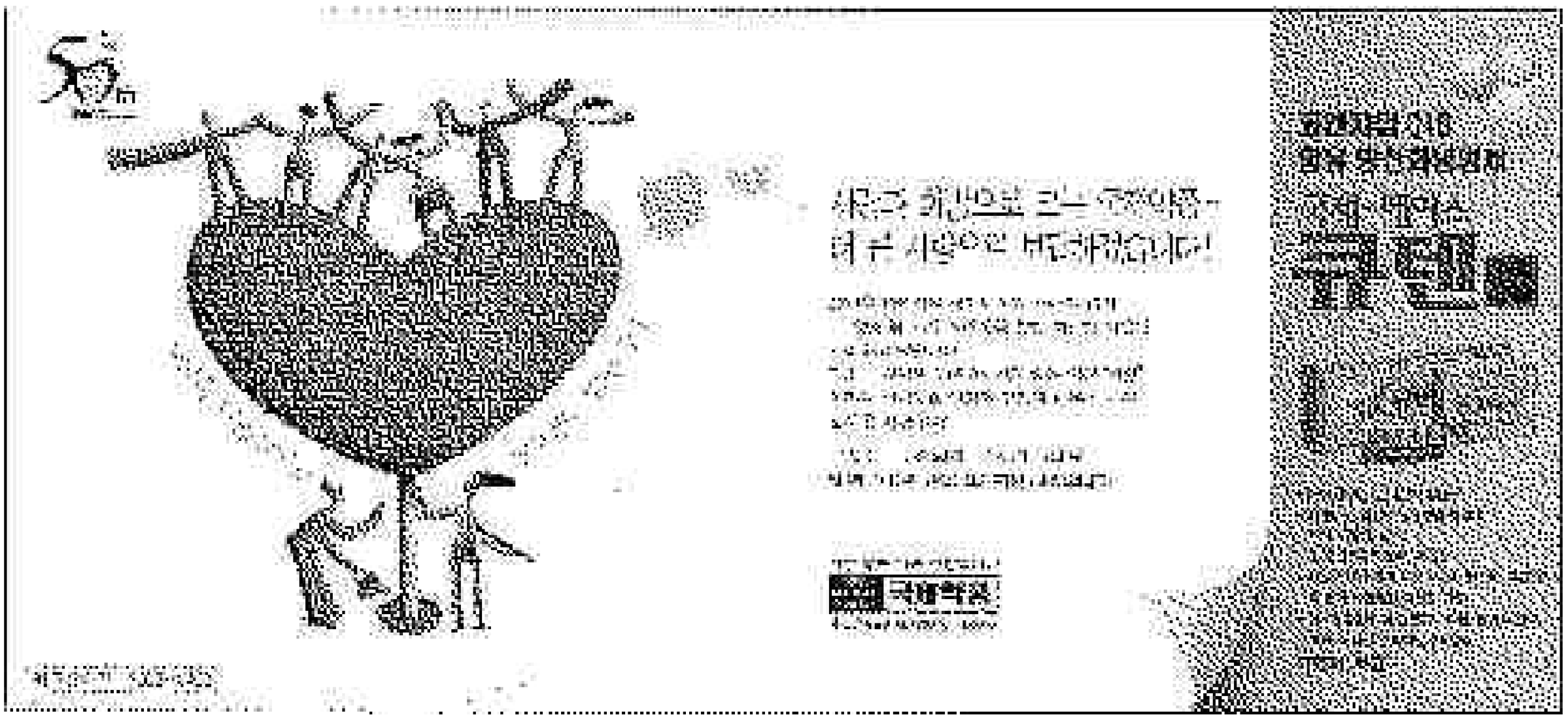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장실서 5천만원 든 핸드백 '슬쩍'

쌍나팔

○…광주역 화장실에서 수천만원이 든 핸드백을 훔친 50대 여성이 CCTV 때문에 범행 사실이 들통.

○…철도공안사무소 순천분소는 13일 아파트 대금 5천300만원이 든 핸드백을 가져간 김모(여·57)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

○…순천분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역 화장실에서 또 다른 김모(여·44)씨가 놓고 간 핸드백을 몰래 가져간 혐의.

○…순천분소는 광주역과 인근 육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 자료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